

스웨덴과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비교

Comparative Study of Inhabitants' Life Satisfaction in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between Sweden and Denmark

최정신*
Choi, Jung Shin

Abstract

There is an increasing curiosity in Nordic as well as Far East Asian countries about senior cohousing, where the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55+, form a community for independent living. What are the ideas behind senior cohousing? Why are people moving to senior cohousing community? What may senior cohousing provide and mean for individuals and groups of the elderly? Is senior cohousing a sustainable idea for future generations of elderly people? There is a curiosity among elderly people looking for interesting alternatives. Municipalities and state authorities hope that senior cohousing can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scope for support by the public sector is decreasing. Actors in the building sector are interested in investment and meeting the demands. In Denmark and Sweden the senior cohousing concept had a revival around 1985. In Denmark there has been a vivid discussion and plenty of books have been published. In Sweden there are few evaluations but an increasing interest.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Danish, Swedish and Nordic as well as Far East Asian countries, there is a concern to explore and compare to get more facts and deeper understanding for further actions.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f inhabitants' life satisfaction in cohousing communities in Denmark and Sweden. The study is based on discussions with cohousing providers, study-visits in cohousing communities and a questionnaire to residents themselves. Study-visits took place during springtime and the questionnaires were handled spring and summer of 2002. 655 senio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from 14 seniorbofællesskaber (rented or housing cooperatives) in Denmark, 11 seniorhus within the SABO sector (municipality owned housing with rental apartments) and 8 housing cooperatives initiated by the Seniorgarden Housing Company in Sweden.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using frequency, percentage, cross-tab and chi-square test. This paper focused three major areas of interest; 1) characteristics of the inhabitants, 2)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and mutual cooperation among residents and 3) evaluative outcomes from the inhabitants' points of view. Mainly the inhabitants expressed quite positive experiences of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everyday life and a few difference was found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Denmark and Sweden.

Keywords : Senior cohousing, Life satisfaction,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y, Mutual cooperation, Sweden, Denmark.

주요어 : 노인용 코하우징, 생활만족도, 공동활동 참여, 상호협조, 스웨덴, 덴마크.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중에는 자신들의 노후기에 자녀들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으로 노부부 또는 독신으로 은퇴 후의 생활을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주택대안을 강구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을 위한 노후주택 대안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의 운동이 벌어졌으면 하는 희망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주제이다(Choi, 2004b;

Paulsson & Choi, 2003c; Lee, 2004; 최정신, 2004, 홍형욱 외, 2004).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코하우징, 또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개발된 경험이 없으므로 이에 앞서 사회적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칸디나비아나 미국의 경우를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코하우징, 또는 노인용 코하우징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주거대안을 강구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 효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이란 건강한 노후세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상호간의 공동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치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주택의 일종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해 나가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PhD.
본 연구는 200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고, 직장으로부터는 은퇴하였으나 아직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층의 노후세대, 즉 빈 동우리 세대(empty-nest generation)에게 권장할만한 주거대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권오정, 2000).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동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하여 일찍부터 핵가족 체제의 붕괴, 기혼여성의 취업률 상승, 고령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기혼 취업여성에게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경감을, 노인이나 홀로 사는 독신 가구에게는 고독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1940년대부터 여성주의자들(feminists)과 모더니스트(modernists) 들에 의하여 코하우징이 개발되었다. 이 중에서 노부부, 또는 홀로 사는 노인만을 위해서 코하우징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노인용 코하우징이고, 이러한 주거단지는 1970년 대 이후 덴마크를 선두주자로 스칸디나비아에서 일반화되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 배경에는 유사한 점도 많은 반면, 서로 다른 차이도 있다. 그 중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단지설립주체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이 뜻을 함께 하는 미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하는데 비하여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서류자료를 기반으로 익명의 입주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Vestbro, 2000).

노인용 코하우징 공동체에서의 생활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코하우징 개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발표된 연구들 중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한 POE 성격의 논문은 드물었고, 더욱이 덴마크와 스웨덴, 두 나라 간의 차이를 비교한 논문은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십 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나라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기존 노인용 코하우징의 평가 자료는 물론,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노인용 코하우징을 개발하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을 위해 유용한 기본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3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두 나라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 주민의 특성(5항목), (2) 공동활동 참여의지와 주민 간 상호협조(2항목), (3)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평가(9항목) 등이다.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는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외에도 주거단지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주민들의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하우징 단지의 물리적 환경 특성은 국가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보다는 주민 간의 공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기본 이념에 충실하게 디자인되어 국가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McCamment & Durrett, 1994; 최정신, 2003a; Paulsson & Choi, 2004; Choi & Paulsson, 2005)에서 입증되었다.

한편,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기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넓게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르딕 국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하면 두 나라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Paulsso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문화적 특성에 대한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법을 사용하였다. 기초과정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을 공급하는 주택회사와 노인용 코하우징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하였고 주택회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각 코하우징 주거단지의 설립이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40여개 코하우징 단지의 50명 이상의 주민대표들과 이메일, 전화, 편지를 통하여 접촉한 후, 그 중 8개 주거단지에서 현장견학을, 33개 주거단지에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설문지는 덴마크어와 스웨덴어로 동시에 작성하였고, 배부는 덴마크에서는 주민 대표가, 스웨덴에서는 주택회사가 맡아주었다. 설문지의 회수는 응답자들이 설문내용을 기록한 후, 미리 배부한 반송봉투에 넣어 연구자에서 채우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배부된 960부의 설문지 중 최종 655부(68.2%)가 회수되어 이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의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카이검증 등이었다. 연구대상 노인용 코하우징과 설문 응답률은 <표 1>과 같다.

II. 코하우징 모델과 노인용 코하우징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코하우징 모델의 개념과 발달과정

집합주거(collective housing) 또는 코하우징(cohousing)

1) DAB(Danmark Almennyttigt Boligselskab): The Central Organization of Non-Profit Housing Companies in Denmark.
SABO (Sveriges Allmannyttiga Bostadsforetag): The Central Organization of Municipality Owned Non-Profit Housing Companies in Sweden.
Siniorgarden: A nationwide private housing company in Sweden.

표 1. 연구대상 노인용 코하우징과 설문 응답률

코하우징 주거단지	설문지 배부가구 수	응답자 수	응답률(%)
덴마크 14개 ²⁾	230	187	81.3
SABO 11개 ³⁾	488	282	57.8
시니어고든 8개 ⁴⁾	242	186	76.9
합계	960	655	68.2

이란 가족이나 개인이 매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취사, 어린이 양육 등과 같은 최소한의 의무를 분담하며 사는 주거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아이디어의 기본이념은 이러한 공동활동이 가족, 특히 주부의 가사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웃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안전감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것이다.

주민 간의 공동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코하우징과 공동 소비 즉, 공동으로 유료 서비스를 받는 코하우징은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Paulsson & Choi, 2004).

초기 코하우징의 실험은 스칸디나비아에서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적용되었고(Vestbro 1982; Woodward, 1989),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다가 1960년대(1968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덴마크가 선두 주자로서 어린이를 가진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코하우징(bofælleskaber)이 개발되었다. 이 주거공동체의 기본이념은 작업분담의 원리에 기초하여 때로는 새로운 주거단지를 구성하여 시작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아파트 건물이나 소규모 주거단지를 개조하여 만들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 주거공동체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물론 갈등과 어려움도 많았다(Paulsson & Choi, 2004).

그 동안 덴마크에서는 코하우징의 설립방법, 디자인 기법, 조직 방법 등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가 출판되었고, 그 중에는 다분히 홍보적인 성향을 띤 것도 많았다. 코하우징의 발달에 있어서 스웨덴이 덴마크의 뒤를 따랐고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이를 더 소규모로 적용하였다.

2. 노인용 코하우징의 개념과 발달과정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코하우징의 다음 단계, 즉 노인용 코하우징 모델은 1985년경에 등장되었고, 이 주제는 폴손과 슌드베리(Paulsson & Sundberg, 2001)에 의해 잘

2) Ammershøj, Det Kreative Seniorbo, Fredensbo, Fællesbyg af, GeorgsLysthys, Gimle, Hammersparken, Kirsebælunden, Korvetten, Mariendalsvej 14-18, Midgardsgruppen, Mollebjerg, Rynkebakken, Sækkedyb.

3) Bildhuggaren, Herrhagen, Katrinelund, Kopmangatan, Kv. Limhallen, Nacksta, Nydala, Nasgarden, Kv. Russinet, Kv. Sangen, Tillbacksvagen

4) Osterlen Seniorbo, Solrosen, Ringblomman, Eriksberg, Hojdpunkten, Kaplanen, Solhojden, Tunadalen

묘사되었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발달은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거의 유사하였다. 덴마크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노인복지 정책을 개정할 때 기존의 코하우징과 병행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발되었으나, 스웨덴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의 주된 원인이 노인용 서비스주택의 몰락에 있었다. 즉, 정부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비스주택 대신에 다른 주거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노인용 코하우징이 손쉬운 대안으로 고려되었다(Paulsson & Sundberg, 2001). 이처럼 스웨덴에서 설립된 노인용 코하우징은 뒤이어 노르웨이,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도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가 없거나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공격부양 서비스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한편, 건강한 고령인구들은 자기들 스스로 매력적이고 안전한 주거대안을 찾아야만 하게 되었다. 자립적인 노인들은 꾸준히 새로운 주거대안을 찾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감소하고 있는 공적 부양을 대신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에서 노인용 코하우징의 발달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로부터 개인화(individualization)로의 전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이래 덴마크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확고해졌고 뒤이어 다른 노르딕 국가들에서도 노인용 코하우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Paulsson & Choi, 2004).

노인용 코하우징에 입주하려면 심신장애가 없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동거하는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조건 이외에도 최소한의 연령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령조건은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최소한 50 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그 나라에서 노인주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최정신, 2003c).

관련연구 분야에서는 앞으로의 정책과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보다 많은 사실과 충실한 내용을 탐색하고 비교하려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뒤에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노인용 코하우징이 현재에는 인기가 있지만 몇 년 후에는 곧 시대에 뒤떨어지는 주거대안이 되는 것은 아닐까? 노인용 코하우징이 과연 미래의 노인세대를 위해서도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일까? 노인용 코하우징이 노인 개개인과 집단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한 의문과 함께 건축부문의 담당자들은 투자와 고령인구 집단의 수요충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Paulsson & Sundberg, 2001).

III. 노인용 코하우징의 물리적 환경

1. 단지 규모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비슷하다. 즉, 개인 부엌과 욕실이 딸린 몇 개의 작

은 개인주택과 옥외 공간에 배치된 적당한 규모로 된 1~2개의 공동생활시설로 구성되며 공동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단지 총 건평의 15~20% 정도이다. 코하우징 계획은 공동체의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가능하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togetherness)"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중요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층의 연립주택이나 블록(block) 형태로 주택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단지 규모는 관리적인 입장에서만 주민의 수나 주택의 수를 맞추기는 어렵다. 건물의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경제적 관점은 반드시 주민의 관점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는 규모가 큰 것이 유리하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더 좋다. 아직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코하우징 단지의 전체 주민 수는 80명이 함께 사는 것은 너무 많고 6명이 함께 사는 것은 공동활동을 수행하기에 너무 작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주거단지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는 보다 작은 그룹, 즉 20~30개의 주택에 40~50명 정도의 주민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Jensen, 1994).

2. 개인주택

노인용 코하우징의 개인주택(dwelling unit) 유형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 등으로 다양한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유형이나 1~2층의 연립주택 유형이 많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4~5층 정도의 저층 아파트 유형이 많다. 연립주택 유형에 비하여 단독주택 유형은 비교적 적는데 그 이유는 연립주택 유형이 단독주택 유형보다는 대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고밀화 됨으로써 코하우징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 간의 익명성을 방지하고 친밀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지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중·고층 아파트로 개인주택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덴마크보다 스웨덴에서 일반적이다.

개인주택 평면은 방 2개(거실, 침실 포함)에 부엌이 계획된 예가 가장 일반적이고 최저 방 1개부터 최대 4개까지이다. 가구당 주택면적에는 차이가 커서 최저 30㎡부터 114㎡까지인데 이는 소유형태가 공영임대인가 또는 조합소유나 개인소유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 공영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보조금 때문에 독신 가구용 임대주택은 65㎡를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에 제한을 받으나, 개인소유의 경우에는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주택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크다.

3. 공동생활시설

코하우징에서 공동생활시설(Common house)의 배치는 주민의 공동활동 참여도를 최대화하도록 대부분 단지 중

심이나 단지 입구에 계획한다. 즉, 커먼하우스를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유형의 개인주택을 배치하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데,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의 한 아파트를 커먼하우스로 계획하여 주민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에 쉽게 들러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최정신, 2003a).

공동생활시설의 면적은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적 차이가 크다. 이것은 단지 내 주민들의 공동활동의 종류와 참여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단지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동활동의 종류가 많을수록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며 이는 곧 공동생활시설 규모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보인다. 공동생활시설의 크기는 단지를 처음 계획할 당시부터 주민, 지방정부 당국, 건축가들과의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

코하우징은 공동생활을 적극 권장하고 주민들 상호간의 보다 많은 협조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주거단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을 통하여 주민 상호간에 비슷한 기대수준과 비슷한 공동생활 참여가 없을 때에는 원활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동활동의 종류와 빈도나 공동생활시설 등은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되게 공동체마다 적절히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용 코하우징을 입주한 주민 대다수가 평생을 그곳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주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이 활동적이고 연령이 젊은층인 경우의 단기적인 생활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이 더욱 고령화 될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접근성을 최대화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가 초기부터 이루어야함은 필수적이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주민 특성의 비교

본 연구에서 논의될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14개 단지 모두 미래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립모임을 가지고 나중에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된 "주민 주도형" 설립단지이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산하 공영임대주택 회사조합인 SABO(11개 단지)와 스웨덴 유수의 민영주택회사인 JM회사 산하의 시니어고든(Seniorgarden)에서 설립한 단지들(8개 단지)로 "지방정부 주도형"과 "민영회사 주도형" 설립 단지이다. 소유권에 있어서는 덴마크는 임대, 개인소유, 조합소유 등 다양하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SABO는 임대, 시니어고든은 개인소유이다. 그러므로 주민이 모두 55세 이상이라는 공통점은 가지나 소유권, 설립주체 면에서는 상이

5) SABO는 Sveriges Allmannyttiga Bostadsforetag의 약자로 전국적으로 공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회사조합이다. 이 중에서 노인용 임대주택도 사업의 일부를 차지하며 특히 최근에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의 주민특성을 덴마크, SABO, 시니어고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세 집단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1/3이 남성이고 2/3가 여성이다. 연령은 약 50% 정도가 70~79세로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32%가 70세 미만, 20%가 80대 이상이다. 매우 드물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90세 이상의 주민도 있다(1.8~3.5%). 그러므로 80% 정도가 80세 미만으로 초 고령층은 드문 편이다. 거주형태는 독신노인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지만 노인층의 일반적인 거주형태로 본다면 비교적 유배우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현재 코하우징에서의 거주기간은 40%정도

가 7년 이상, 30% 정도가 3~7년간 거주하여 전체적으로 70%의 응답자가 최소 3년 이상의 코하우징 거주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문응답에는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가장 많은 49.2%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다음이 중, 고등학교(29.2%)졸업이며 대학졸업 이상이 21.2%를 차지하여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다. 세 집단 중에서는 특히 SABO의 주민이 가장 교육수준이 낮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덴마크의 경우에는 임대와 조합, 자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시니어고든은 자가인데 비하여 SABO만이 모두 임대주택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덴마크와 스웨덴 두 나라 간 교육수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은퇴 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은 다양하다. 전체적으로는 숙련노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고(19.8%) 다음이 단순노무직(16.6%)이다. 그러나 집단별로 보면 SABO 주민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반면(24.1%), 덴마크의 경우에는 숙련노무직이 41.7%로 가장 많아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사실은 한슨 등(Hanson et al, 2000)의 연구결과, 즉 코하우징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서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SABO의 주민특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건강상태는 대부분(7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3% 미만으로 극소수이다. 전체 응답자 중 20명 정도가 휠체어를, 40명 정도가 롤레이터(rollator)를 사용하는데 이들도 역시 모두 SABO의 주민이다. 이것은 90세 이상 주민이 SABO에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용 코하우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코하우징에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스웨덴의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칼덴비와 발덴(Caldenby & Wallden)은 사회조사를 통하여 예테보리의 스타켄(Stacken) 코하우징 주민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25~45세 사이의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여성, 독신자, 편부모가족, 특히 어린이를 가진 편모가 매우 많다는 특징도 발견하였다(Caldenby & Wallden, 1984).

또한, 스웨덴에서 4개의 임대형 코하우징⁷⁾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Woodward, 1989), 전체 조사대상자 256명 중 25%가 독신자, 18%가 부부, 28%가 어린이가 있는 편부모, 28%가 어린이가 있는 부부, 1%가 기타로 나타나, 주민 중에 독신자와 자녀를 가진 편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

표 2. 나라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내용	스웨덴			합 계	
	덴마크	SABO	시니어 고든		
성별	남	63(33.7)	90(31.9)	71(38.2)	224(34.2)
	여	124(66.3)	192(68.1)	115(61.8)	431(65.8)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연령 (세)	59이하	11(5.8)	28(10.0)	11(5.9)	50(7.6)
	60-69	71(38.0)	49(17.4)	39(20.9)	159(24.3)
	70-79	82(43.9)	139(49.3)	77(41.4)	198(45.5)
	80-89	23(12.3)	56(19.8)	57(30.7)	136(20.8)
	90이상	-	10(3.5)	4(1.8)	12(1.8)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거주 형태	독신	187(42.2)	173(61.3)	88(47.3)	340(51.9)
	부부	108(57.8)	109(38.7)	98(52.7)	315(48.1)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교육 수준 ⁶⁾	초등졸	85(45.5)	170(60.2)	68(36.6)	322(49.2)
	중등졸	44(23.5)	51(18.1)	46(24.7)	141(21.5)
	고등졸	6(3.2)	23(8.2)	23(12.4)	52(7.9)
	대졸이상	52(27.8)	38(13.5)	49(26.3)	139(21.2)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은퇴전 직업	주부	18(9.6)	40(14.2)	13(7.0)	71(10.8)
	단순노무직	16(8.6)	68(24.1)	25(13.4)	109(16.6)
	숙련노무직	78(41.7)	37(13.1)	15(8.1)	130(19.8)
	하위공무원, 사무직	12(6.4)	31(11.0)	44(23.7)	87(13.3)
	고위공무원, 사무직	18(9.6)	46(16.3)	42(22.6)	106(16.2)
	학계	11(5.9)	20(7.1)	25(13.4)	56(8.5)
	자영업주	20(10.7)	21(7.4)	12(6.5)	53(8.1)
	기타	14(7.5)	19(6.7)	10(5.4)	43(6.6)
	합 계	178(100)	282(100)	186(100)	655(100)

주: 본 표에서는 조사대상의 상세한 내용을 보기 위하여 스웨덴을 SABO와 시니어고든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이 두 집단을 통합하여 스웨덴으로 간주하였다.

6)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의무교육이 중등학교까지 9년이다. 그러나 이는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고 현 응답자들의 학령기에는 초등학교 6년이 의무교육기간이었다.

7) 조사대상인 4개의 코하우징은 Fristad, Rio, Blenda, Prastgardshagen이다. (자료: Woodward, A. Communal Housing in Sweden in New households New Housing ed. by Franck & Ahrentzen, Van Nostrand Reinhold, 1989).

로는 19~35세가 43%, 36~64세가 46%, 65세 이상이 11%를 차지하여, 고른 연령분포를 보였다. 이 조사는 물론 노인용 코하우징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노인집단이 코하우징의 주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코하우징 주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코하우징 주민이 스웨덴의 다른 공영임대주택 주민의 특성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드베리(Lindberg, 1985)의 조사에 의하면 공영임대주택 주민의 67%가 노동자 계층인데 비하여 코하우징 주민은 단지 28%만이 노동자 계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장노무자나 육체노동자는 하나도 없었다. 놀랍게도 41%가 소위 "반 자율적인(semi-autonomous)"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저널리스트, 컨설턴트, 건축가 등이었고, 나머지 24%는 중간경영자 계층으로 전체적으로 69%가 공공부문 종사자였다. 즉, 이 선구적인 주거단지의 주민특성은 잉글레하르트(Inglehart, 1977)가 표현하는 소위 "후기 물질주의자(post-materialists)"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은 녹색당(Greens)이나 여성운동과 같이 대안적인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성향의 집단, 즉 물질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집단이었다(Woodward, 1987).

주민특성 항목 중에서 두 나라 간에 특기할만한 차이는 연령에서 나타난다($P < .001$) <그림 1>. 덴마크의 경우에 70세 미만(44%)과 70대(44%)가 전체 응답자의 88%를 차지하는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70세 미만이 27%, 70대가 46%로 70대까지의 주민이 7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80대 이상(27%)이 덴마크의 경우(12%)보다 2배 더 많다. 그리고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덴마크의 경우가 74.5세(남성)와 79.2세(여성)로 스웨덴의 77.7세(남성)와 82.1세(여성)보다 3세 더 젊다. 이것은 아마도 덴마크인의 평균수명이 스웨덴인보다 짧은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결과에 의하면 덴마크 주민들이 스웨덴 주민들보다 3년 일찍 노인용 코하우징에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덴마크인이 스웨덴인보다 더 일찍 노인이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동기가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최정신, 2003b; Paulsson & Choi, 2004). 즉, 덴마크 주민들은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보다 나은 삶과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일찍 입주하는 데 비

하여 스웨덴 주민들은 보다 늦게 안전성을 위하여 코하우징으로 입주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특성은 연령분포를 제외하고는 두 나라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건강하고, 70~85세가 주류를 이루며, 일부 노인보다는 독신노인이 약간 더 많고, 3년 이상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거주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 전 직업분포는 다양하다.

2. 공동활동 참여의지와 주민 간 상호협조의 비교

노인용 코하우징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환경과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주민의 공동생활참여와 주민 간 상호협조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코하우징의 주민들을 통합적, 정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알려져 있고(Lee, 2004; 최정신 & Paulsson, 2005), 사람들은 누구나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신빙성 있고 안정적인 단체에 소속하게 될 때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이 가진 정서와 기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를 활기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코하우징에서 주민의 공동활동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 공동체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 투자이며 그 만큼 코하우징 단지의 운영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도 가져온다(Parliament, et al.1988).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공동활동 참여는 자신들이 함께 노력하여 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코하우징은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하고 매일의 일상적인 일들을 나누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공동시설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주거학연구회, 2000).

코하우징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공동활동은 공동저녁 식사, 저녁의 사교모임, 일년에 몇 차례 가는 여행, 정원 가꾸기, 취미활동, 독서실이나 세탁실 이용 등이 있다. 그러나 공동활동은 나라 또는 공동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공동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그저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종종 만나는 정도인가 하면(Singelensberg, 1993), 덴마크의 경우에는 커피모임은 매일, 공동식사는 매주 1회 함께 하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커피모임은 매일, 공동식사는 1~2주에 한번 함께 하여 그 빈도와 종류는 공동체마다 다양하다(최정신, 2003a).

한국의 예비노인층을 대상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홍형욱 외, 2004)에서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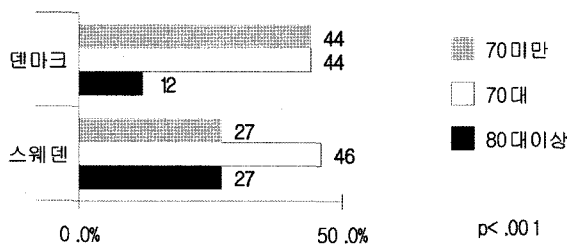


그림 1. 연령 비교

표 3. 노인용 코하우징의 공동활동 참여의지와 주민 간 상호협조 비교 N(%)

내용	응답	덴마크	스웨덴	합계
1	전혀 아니다	30(16.0)	193(41.2)	223(34.0)
	거의 아니다	5(2.7)	59(12.6)	64(9.8)
	그렇다	69(36.9)	144(30.8)	213(32.5)
	매우 그렇다	83(44.4)	72(15.4)	155(23.7)
	합계	187(100)	468(100)	655(100)
2	잘 모르겠다	5(2.7)	98(21.7)	103(16.2)
	차이 없다	18(9.8)	67(14.8)	85(13.4)
	좀 더 많다	79(42.9)	181(40.0)	260(40.9)
	훨씬 더 많다	82(44.6)	106(23.5)	188(29.6)
	합계	184(100)	452(100)	636(100)

주: 1. 공동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였는가?
 2. 일반주택보다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주민 간 상호협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가?
 *무응답을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음.

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거주한다면 안전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든가, 노인으로서의 고독감을 잊을 수 있다는 점에는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힘들다거나 공동활동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적지 않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동활동은 국가나 개별적인 코하우징 단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하우징 주민들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여 상호간에 더욱 많이 돕고 지낸다는 사실은 명확하다(Choi, 2004a; 2004b).

1) 공동활동 참여의지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이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 데 공동생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56.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표 3>, 두 나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 < .001$).

이주동기가 공동활동 참여와 “관계있다”와 “매우 관계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덴마크의 경우(81.3%)가 스웨덴(46.2%)에 비하여 거의 2배나 많아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2>.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동활동 참여 의지와 관계없이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은 반면(53.8%), 덴마크의 경우에는 공동활동에 참여를 위해 이주한 사람이 81.3%를 차지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인 점은 매우 흥미롭다. 따라서 코하우징의 공동활동은 스웨덴 보다는 덴마크 주민들이 더 큰 의의를 둔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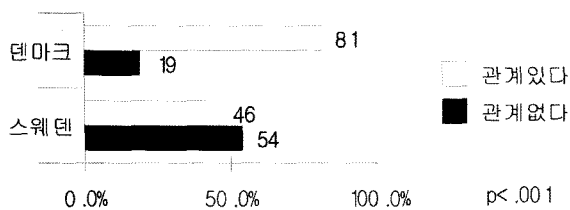


그림 2. 이주동기와 공동활동 참여의지의 관계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코하우징의 이주동기에 대한 선행연구(Paulsson & Choi, 2004)에서도 이웃과의 좋은 접촉을 위하여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사람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특히 덴마크(79.7%)의 주민들이 스웨덴의 주민들(52.6%)보다 코하우징에서 이웃과의 접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과도 일관성이 있다.

2) 주민 간 상호협조

일반주택에서보다 코하우징 공동체 안에서 주민 간 상호협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표 3>,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많다(39.7%)”와 “훨씬 더 많다(28.7%)”고 응답한 사람들이 68.4%이고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까지 합하면 대부분(83.8%)의 사람들이 적어도 일반주택에서보다는 코하우징에서 주민 간 상호협조가 더 많다고 시인한다.

이것은 싱겔렌스버그(Singelenberg, 1993)가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상호협조를 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엔슨(Jensen, 1994)의 주장과 같이 노인용 코하우징의 보급이 주민 당사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요양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노인부양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이 상호간에 서로 도움으로써 거택보호 서비스직원이 해야 할 가정간호 서비스를 대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일 서로 도우며 생활함으로써 부양이 필요 없는 건강한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가 노인 개개인을 요양원에서 24시간 부양해야 하는 책임까지도 없앨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만일 이러한 목적이 실현된다면 현존의 공적(公的) 노인부양 시스템이 재구축되어 노인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당국과 민영단체가 협동하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의 독립성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유지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 상호협조에 대한 두 나라 간 차이를 비교하면 <그림 3>, “좀더 많다”와 “훨씬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덴마크(87.5%)가 스웨덴의 경우(63.5%)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p < .001$). 이것은 전체적으로 덴마크 주민들의 거의 90%가 일반주택보다 코하우징 단지 내에서 주민 간 상호협조가 더 많다는 점에 동의한 결과로, 앞서 논의한 이주동기와 공동활동 참여의지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 스웨덴의 경우에는 60%의 응답자들이 주민 간 상호협조가 많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40% 정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덴마크보다는 주민관계가 덜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단지설립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덴마크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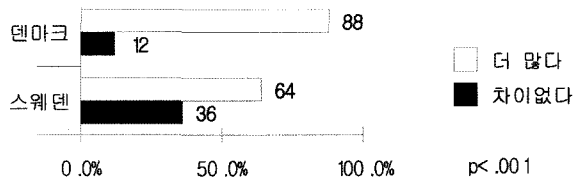


그림 3. 주민 간 상호협조 비교

주민 주도형 설립단지이기 때문에 코하우징의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2~3년이 걸리는 입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서로 잘 알고 친숙해져서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폴손과 스투베리(Paulsson & Sundberg, 2001)가 언급하였듯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이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 국민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3.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평가 비교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 중, 미국의 노인용 코하우징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환경적인 요인이 노인들로 하여금 자녀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동시에 이러한 주거생활의 만족요인들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는 남편과 5년 전에 사별하고 난 후 계속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해야 했던 주택관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코하우징에 대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은 너무나 살기 좋은 생활방식이지요. 마당도 손볼 필요도 없고, 눈 지울 걱정도 없고, 집 관리에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참 친절하거든요.” (Lee, 2004에서 재인용)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만족 평가는 몇 편의 관련연구(Paulsson & Choi, 2003, Choi, 2004b)에서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단지계획, 공동생활시설, 개인주택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단지 내의 공동활동의 종류와 참여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동사우나와 욕실, 공동 운동실, 개인주택의 수납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공동활동의 종류와 참여에 대해서는 커피모임, 운영위원회, 공동식사가 모든 코하우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동활동의 종류였고, 주민들이 커피모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았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95%가 자신들의 주거와 생활이 만족스럽고 거의 전체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동년배의 타인들에게도 코하우징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덴마크와 스웨덴의 두 나라 간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표 4,5>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 8가지 내용에 대한 두 나라 간의 비교이다.

1) 주민의 연령구성

그 동안 학계에서는 노인의 거주형태에 대하여 모든 연령층이 혼합된 연령통합형(age-integrated) 주거환경이 좋은가, 또는 노인층만이 분리된 연령분리형(age-segregated) 주거환경이 좋은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특히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정책적으로 노인들의 노말리제이션(normalization)을 강조하여 노인들이 평소에 거주하던 일반 사회 환경에 통합되어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동년배들끼리만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고, 공동관심사를 나눌 수 있어서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연령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현재와 같이 55세 이상의 연령층만으로 구성하는 것을 82.3%가 희망하여 현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표 4. 노인용 코하우징의 생활만족도 비교 1 N(%)

내용	응답	덴마크	스웨덴	합 계
1	55세 이상만	134(80.7)	365(83.0)	499(82.3)
	모든 연령혼합	16(9.6)	56(12.7)	72(11.9)
	기타 다른 형태	16(9.6)	19(4.3)	35(5.8)
	합 계	166(100)	440(100)	606(100)
2	꽤 많이	5(2.8)	17(3.8)	22(3.5)
	약간	39(21.5)	105(23.4)	144(22.9)
	전혀 안함	137(75.7)	327(72.8)	464(73.7)
	합 계	181(100)	449(100)	630(100)
3	그렇지 않다	6(3.2)	20(4.4)	26(4.1)
	그렇다	76(41.1)	162(35.7)	238(37.2)
	매우 그렇다	103(55.7)	272(59.9)	375(58.7)
	합 계	185(100)	454(100)	639(100)
4	전혀 아니다	9(4.9)	11(2.5)	20(3.2)
	아니다	33(18.1)	105(24.0)	138(22.3)
	그렇다	140(76.9)	322(73.5)	462(74.5)
	합 계	182(100)	438(100)	620(100)

주: 1.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연령구성 희망은?
 2. 외부로의 이주를 고려해 보았는가?
 3. 주거와 생활조건이 이상이 실현되었는가?
 4. 이주 전의 기대가 이루어졌는가?

*무응답을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음.

대한 두 나라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표 4>. 그러나 모든 연령층이 혼합되기를 희망하는율은 덴마크(9.6%)보다 스웨덴(12.7%)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 다른 형태에 대한 희망은 덴마크(9.6%)에서 스웨덴(4.3%)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그림 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른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코하우징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들로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스스로 노인들만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선택하여 입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의 연령층만 거주하는 노인용 코하우징에 만족도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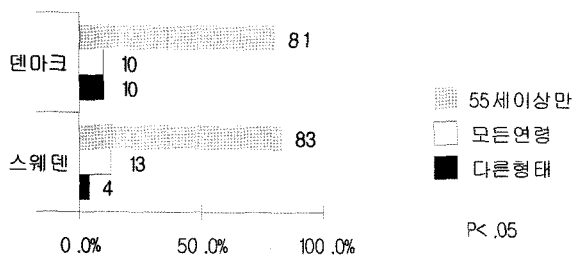


그림 4. 주민의 연령구성희망 비교

이를 덴마크, SABO, 시니어고든의 세 집단으로 보다 상세히 분리해 보면, 55세 이상의 연령층만 거주하는 것보다 다른 연령층과 통합해서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SABO의 경우(17%)에 가장 높는데 이것은 SABO가 모두 공영임대주택이고 주민들 중에 노동자 계층이 많으므로 아마도 다른 집단보다 사회 민주적 기반에서 보다 정치적 원리에 충실한 것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Paulsson & Choi, 2004).

2) 외부로의 이주고려

코하우징 외부로의 이주에 대한 고려는 코하우징 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주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살던 곳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입주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만일 외부로의 이주를 고려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대한 실망이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떠나기를 고려해 보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73.7%의 응답자들이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고, 외부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두 나라에서 모두 2~5%로 매우 적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최대한 오래도록 코하우징에서 살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다<표 4>. 이에 대한 두 나라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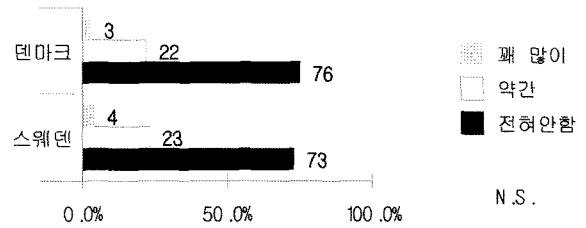


그림 5. 외부로의 이주고려 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 정도의 사람들이 이주에 대하여 “약간(22.9%)”, 또는 “꽤 많이(3.5%)”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의할만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왜 코하우징을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않았으나, 덴마크, SABO, 시니어고든의 3개 집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Paulsson & Choi, 2004), 외부로의 이주고려는 SABO 주민이 가장 많이 하였고 시니어고든의 경우에 가장 적게 하였다. 그 이유를 추정하면 아마도 SABO의 주민들은 공영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보다 자주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는 데 익숙한 반면, 시니어고든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나 소규모 조합주택단지에서 살다가 코하우징의 입주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이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로의 이주고려도 가장 적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3) 주거와 생활조건에서의 이상실현

현재의 노인용 코하우징에서의 주거와 생활조건에서 자신들의 이상이 실현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95.9%)들이 “매우 그렇다(58.7%)” 와 “그렇다(37.2%)” 로 응답하여, 거의 모든 응답자(95.9%)들이 자신들의 현재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표 4>. 이 응답도 역시 두 나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공통적이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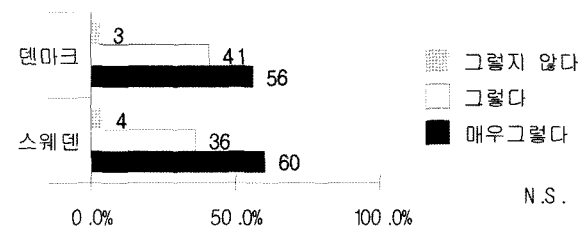


그림 6. 주거와 생활에서의 이상실현 비교

4) 이주 전의 기대실현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기 전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2/3(74.5%) 정도가 “그렇다” 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고<표 4>, 두 나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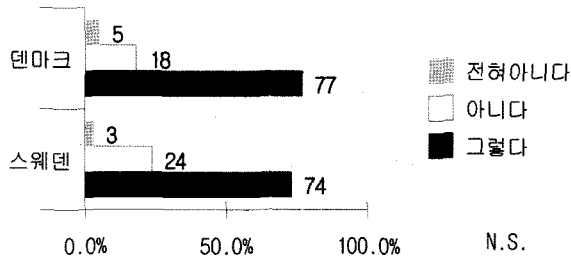


그림 7. 이주 전의 기대실행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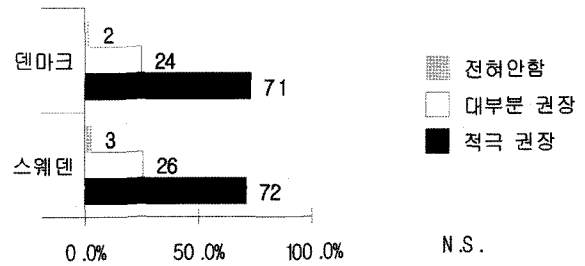


그림 8. 코하우징의 권장 비교(%)

5) 노인용 코하우징의 권장

<표 5>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중, 나머지 4개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용 코하우징을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하겠느냐는 질문에 거의 모두(97.8%)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특히 72.2%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장 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표 5>. 이 응답에 대해 두 나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공통적으로 같은 반응임을 알 수 있다<그림 8>.

6) 이주 직전과 현재의 주거와 생활 비교

현재의 주거와 생활을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과반수 정도(55.4%)의 응답자가 “훨씬 좋아졌다(35.9%)”와 “좋아졌다(18.6%)”고 응답하고 “비슷하다”는 응답도 32.5%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본다면 87.1%의 사람들이 종전의 주거와 생활조건보다 현재가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평가한다<표 5>. 따라서 현재의 주거와 생활이 종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12.9%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두 나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p<.001), 덴마크의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5.8%,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42.4%로 거의 비슷한 데 비하여, 스웨덴의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27.0%)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58.6%)이 2배나 더 많아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가 크게 생활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9>.

표 5. 노인용 코하우징의 생활만족도 비교 2 N(%)

내용	응답	덴마크	스웨덴	합계
5	전혀 안함	3(1.6)	11(2.5)	14(2.3)
	대부분 권장	45(24.1)	114(25.9)	159(25.6)
	적극 권장	133(71.1)	316(71.7)	449(72.2)
	합계	181(100)	441(100)	622(100)
6	나빠졌다	21(11.7)	58(13.4)	79(12.9)
	비슷하다	82(45.8)	117(27.0)	199(32.5)
	좋아졌다	36(20.1)	78(18.0)	114(18.6)
	훨씬 좋아졌다	40(22.3)	180(41.6)	220(35.9)
합계	179(100)	433(100)	612(100)	
7	나쁘다	21(11.7)	58(13.4)	79(12.9)
	비슷하다	82(45.8)	117(27.0)	199(32.5)
	좋다	36(20.1)	78(18.0)	114(18.6)
	훨씬 좋다	40(22.3)	180(41.6)	220(35.9)
합계	179(100)	433(100)	612(100)	
8	전혀 아니다	8(4.5)	21(4.8)	29(4.7)
	아니다	41(23.2)	167(38.0)	208(33.8)
	그렇다	128(72.3)	251(57.2)	379(61.5)
	합계	177(100)	439(100)	616(100)

주: 5. 동년배에게 노인용 코하우징을 권장하느냐?
 6. 이주 직전과 당신의 현재 주거와 생활을 비교하면?
 7. 동년배와 당신의 현재 주거와 생활을 비교하면?
 8. 현재의 생활이 꿈에 그리던 것인가?
 * 무응답을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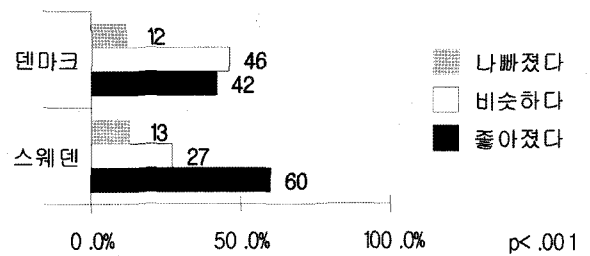


그림 9. 이주직전과 현재의 주거와 생활비교

7) 동년배와 자신의 현재 주거와 생활 비교.

만일 자신의 주거와 생활을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54.5%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조건이 그들보다 “더 좋다”고 응답하고 특히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35.9%)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18.6%)보다 2배 더 많으며 “비슷하다”는 사람은 32.5%이다<표 5>. 이 항목에서는 12.9%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현재 생활이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현재 주거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나라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훨씬 더 좋다”는 응답이 스웨덴의 경우(41.6%)에 덴마크(22.3%)보다 2배 정도 더 많고, 반면에 비슷하다는 응답은 덴마크의 경우(45.8%)가 스웨덴의 경우(27.0%)보다 2배 더 많아서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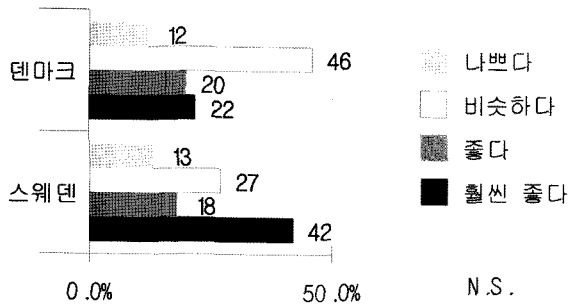


그림 10. 동년배 타인과의 주거와 생활 비교

8) 이상적인 주거로서의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
현재 자신의 생활이 평소에 그리던 “꿈과 같은 생활 (dream living)” 인가를 묻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61.5%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한 반면, “아니다(33.8%)”와 “전혀 아니다(4.7%)”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3 정도를 차지한다<표 5>.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그리던 생활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 미만으로 매우 적다.

이 응답에서는 두 나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p<.001) 현재의 노인용 코하우징을 꿈과 같은 생활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덴마크의 경우에는 72%로 많으나 스웨덴의 경우는 56%로 비교적 적은 반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오히려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그림 11>.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중에서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SABO 주민이 많고 시니어고든의 주민은 적다(Paulsson & Choi, 2004). 그 이유는 이상적인 주거관이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SABO 주민의 주거환경이 덴마크나 시니어고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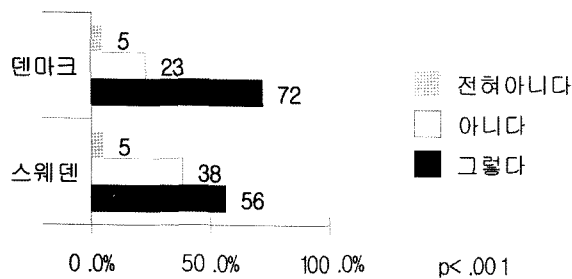


그림 11. 이상적인 주거로서 현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

이상과 같이 노인용 코하우징의 생활만족에 관한 8개 항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 주민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와 생활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부심까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노르딕, 유럽, 동아시아 국가에 이르기까지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독신가구의 증가도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대두된 노인용 코하우징은 주거환경 내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협동이 특히 노인들에게 안전성과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내가 남을 많이 알면 남도 그만큼 나를 많이 알 것이며 이것은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코하우징에서는 주민 자신이 공동체 생활에 깊이 관여해야만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여러 선행연구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다. 즉,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했다고 느끼고, 외부로 이주할 계획이 없으며 자신들이 이주 전에 가졌던 기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코하우징을 적극 권장할 수 있고,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리고 이주 직전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주거와 생활상황이 더 좋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그들은 노인들끼리만 사는 것을 좋아하고 더욱이 현재의 생활을 “꿈과 같은 생활(dream living)”이라고 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인용 코하우징의 생활에 대하여 심각한 정도의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노인용 코하우징은 성공적인 주거대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덴마크와 스웨덴 주민들 사이에는 생활만족에 대하여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다. 덴마크 주민들이 스웨덴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주민 간에 보다 많은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고, 노인들만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현재의 코하우징이 꿈과 같은 생활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 주민들은 현재의 주거와 생활이 이주 직전보다 훨씬 더 좋고, 다른 연령층과 혼합하여 살기를 상대적으로 더 희망한다.

이러한 두 나라 간의 차이에 대하여 단순한 해석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덴마크의 코하우징이 스웨덴보다 미래 주민들에 의하여 설립되므로 주민들이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 설립기간 동안 회의와 협상을 통하여 더 많이 협동하고 친밀한 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덴마크에서는 코하우징이 스웨덴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였다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용 코하우징을 적용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 주거공동체가 다양하게 적용되어야하고 다른 모델의 노인주택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다. 아직까지 노인용 코하우징이 어떤 면에서는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들만을 위한 주거대안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비영리 노인공영임대주택회사인 덴마크의 DAB나 스웨덴의 SABO와 같은 조직에서도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인 설립의지와 능력은 물론이고 지역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주민으로 포괄하고, 지역적인 자원을 활용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년층이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응답은 노인용 코하우징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들은 코하우징에 대한 이념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전념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가진 한계는 다른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들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로서 노인용 코하우징이 아닌 다른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여 사는 노인들, 또는 주민이 노인만이 아닌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에 사는 노인들과의 생활비교가 이루어져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Caldenby, C. & Wallden, A.(1984), Kollektivhus Stacken, Gothenburg.: Korpen.
2. Choi, J. S. & Paulsson, J.(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with Significance for Future Quality of Life in European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ries, The St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Association of Nordic Studies, Sweden, Japan and Korea, Stockholm Sweden.
3. Choi, J.S. (2004a), Perceptions of Senior Cohousing by Korean 50s Living in Seoul Area, Presentation Paper at ENHR International Conference, Cambridge UK.
4. Choi, J.S. (2004b),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12(8), 1189-1216.
5. Fact Sheets on Sweden (2004), Swedish Institute, January 2004. 2005.
6. Foreningen Bofælleskaber for Ældre (1997), Registerant over 42 danske Seniorbofælleskaber: BiC, København.
7.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8. Lee, H.J.(2004),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for Urban Seniors in a New Local Er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6(2), 1-10.
9. McCamant, K. & Durrett, C.(1994), Cohousing, Ten Speed.
10. Paulsson, J. & Sundberg, S. (2001) Seniorboende i Sverige. Ideer, erfarenheter och framtids Uppdrag for Socialdepartementets aldreberedning, Senior 2005. Chalmers. Goteborg.
11. Paulsson, J. & Choi, J.S. (2004). Senior Cohousing in Denmark and Sweden, 스칸디나비아연구 5(1).369-396.
12. Paulsson, J.(2005), Art, Architecture and Design, -Notes on the Nature and Contents of Nordic Models during the 20th Century, 스칸디나비아연구 6(1). 229-256.
13. Singelensberg, J.(1993), Experience from Co-housing Schemes in the Netherlands, Presentation paper for the Conference of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 Copenhagen, 41-50.
14. Vestbro, D.U, (1998). The Study of Collective Housing: A Swedish Perspective,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Edited by Ernesto G. Arias, Avebury, USA, 405-424.
15. Vestbro, D. U.(2000), From Collective Housing to Cohousing-A Summary of Research,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7(2), 164-177.
16. Woodward, A.(1989), Communal Housing in Sweden in New households New Housing edited by Franck & Ahrentzen, Van Nostrand Reinhold.
17. 권오정 (2000). '게오르그스 리스트후스',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서울, 80-89.
18.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서울.
19. 최정신(2003a), 덴마크 자치관리형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1(4), 1-19.
20. 최정신(2003b),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2), 129-138.
21. 최정신(2003c), 제3의 연령대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의 도전: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건축, 47(6), 55-63.
22. 최정신 & Paulsson, J.(2005),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아산사회복지재단 저술지원 연구보고서, 미간행.
23. 홍형욱 · 이경희 · 김대년 · 최정신 · 조재순 · 권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지식마당.

(接受: 2005. 9. 28)